

“목포 남항을 세계적 친환경 선박 산업 중심지로”

2020년부터 해수부 공모 4건 추진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전기추진 차도선 해상 실증 운항중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구축도

목포 남항이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선박
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2023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목포시는 미래 친환경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약 1560억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 4건을 통해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추진 차도선은 목포 인근 해상에서 실증 운항 중이며 세계 최초의 2600톤급 해상실증선박(K-GTB)도 지난해 10월 목포에서 진수식을 마쳤다.

이와 함께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기반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며 친환경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목포 남항 교육연구지구에는 충전 시험동과 관제유지보수동이 준공됐으며 연구동, 전력시험동, 국제협력복지동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목포시는 이러한 연구 기반을 통해 친환경선박 산업을 육성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거점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친환경선박 산업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며 “남항을 세계 친환경 선박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남항 교육연구지구에 충전시험동과 관제유지보수동이 준공됐다. 연구동, 전력 시험동, 국제협력복지동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목포시 제공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조성한다

목포·신안·완도 등 9개 시·군
종합 정보 제공... 관광 거점 역할

목포시는 서남권 9개 시군(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함평, 완도, 진도, 해남, 영광)을 아우르는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광플랫폼은 목포시 평화광장(평화로 82 일원) 내 위치하며 지난 2023년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랫폼은 서남권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관광객들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은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1층에는 관광안내소와 공중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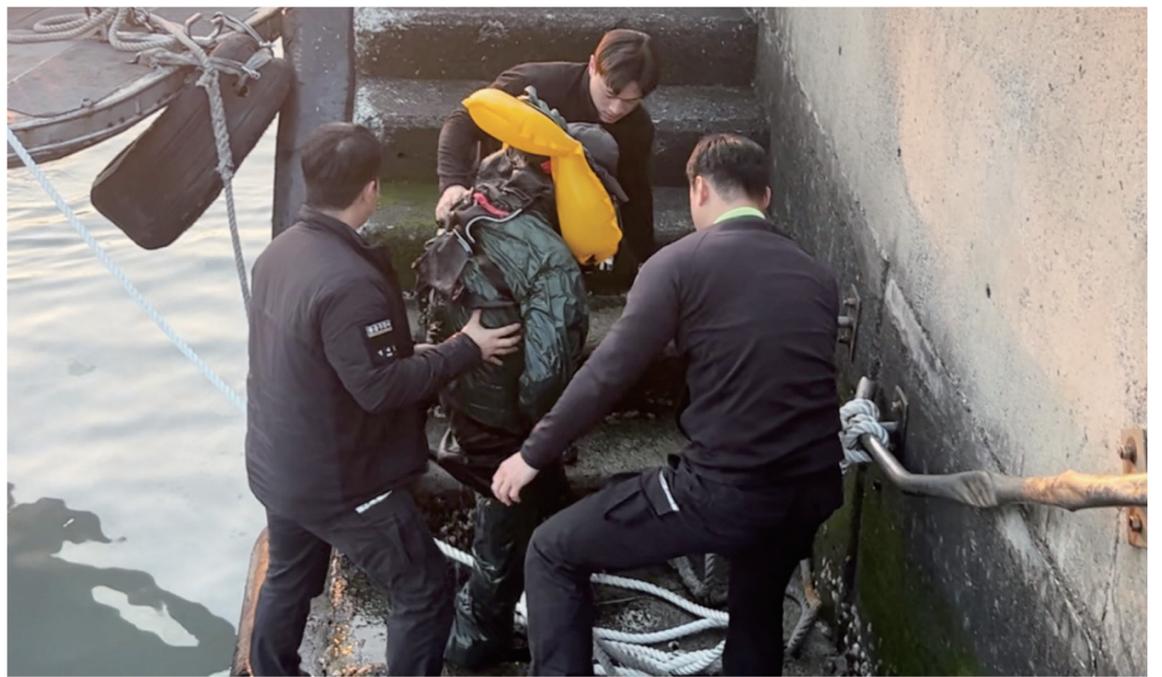
이 마련되며, 방문객을 위한 안내데스크와 수유실도 포함된다. 2층은 기념품 등 지역 관광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구성된다.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해 15인승 엘리베이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관광플랫폼이 지역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서남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서남권 통합 관광플랫폼은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경 진도파출소 직원들이 진도 서망항 항내에서 발생한 익수자를 구조해 부축 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공직자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실시

목포시는 오는 21일 AI 메타버스센터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신 기술을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시는 올해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 매년 100여명의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 적용 방법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윤리와 딥시크(Deepseek)와 관련한 보안 이슈 대응 방안도 함께 교육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교육을 확대해 스마트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실내체육관서, 18일 사랑의 교복 나눔행사

목포시가 올해도 사랑의 교복나눔행사를 이어간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랑의 교복 나눔행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2008년 시작한 교복나눔행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로 큰 호응을 얻으며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관내 중·고등학교 22개교가 참여해 4700여점의 교복이 기증됐다. 기증된 교복은 3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분류한 후 목포지역자활센터빨래대장의 세

심한 세탁, 수선, 드라이클리닝을 통해 새 단장을 마쳤다.

이렇게 정돈된 교복은 오는 18일과 19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학교별로 진열되며 교복을 원하시는 시민 누구나 1인당 2점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위해 2~3개월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준비했다”며 “교복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해경 진도파출소, 서망항서 익수자 구조

발 헛디딘 70대 로프 던져 구해

목포해경 진도파출소가 진도 서망항에서 선원들과 함께 항내 발생한 익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11일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0분경 진도파출소를 찾은 신고자로부터 서망항 내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 당시 주변 선원들이 익수자 A씨(70)에게 로프를 던져 구조를 시도했으나, 힘에 부친 A씨는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구조가 지체될 시 자칫 저체온증으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신고를 접수하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씨의 몸에 직접 로프를 걸어 선원들과 함께 무사히 A씨를 건져 올린

후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입항 후 하선 중에 부두 계단에 서 발을 헛디딘 물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파출소 관계자는 “익수 사고 시에는 초기 발견자의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익수자를 발견하면 주변에 있는 인명구조함 또는 부력을 갖춘 물체를 찾아 익수자에게 던져 해경이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을 확보에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 내달 4일까지

목포시가 오는 3월4일까지 관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한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다.

조사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1인 이상 종사자가 있는 사업체로, 목포시 3만여개의 사업체가 대상이다. 조사 항목은 △사업장 종류 △조직형태 △종사자 수 등 9개 항목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각 사업체를 직

접 방문하는 현장 면접조사 방식을 기본으로,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조사 기간 내 전화·인터넷·배포 조사를 병행한다.

시는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현장 조사원 34명을 투입하고 사전교육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안전한 환경에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체조사 결과는 통계청에서 2025년 9월에 잠정결과를 공표하고 12월에는 조사 결과를 확정한다.

목포=정기찬 기자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목포시가 2025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아동 및 가정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

으로 공모해 총 25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목포시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된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학대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예방 인식 제고를 통한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올바른 양육 및 훈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